

文 “쌀 목표가격 인상”... 安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



文 “농어민이 행복한 나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운데)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농업 정책 발표를 위한 뒤 임지순가락으로 기호 1번을 표시하고 있다.



안, 경주 전통시장 방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성동시장을 찾아 환영하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농·어업 공약 발표

가축용 백신 국산화

지자체장 참여 제2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축산농가 보호와 쌀값 대책 등 농·어업·농어촌 분야 공약 발표했다.

문 후보는 먼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반영해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해 신속한 전염병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조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 방역 업무를 분리해 동물복지도 강화하는 기조로 축산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문 후보는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면서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 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

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청년 농부의 영농정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 전문 후계인력 양성교육 기관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농지를 용역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국립육묘장 시설을 늘리는 동시에 농·어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제도 도입, 의료 취약지역 공공병원 우선 설립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수산물 수출 가공단지 조성하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유류 횡만을 해양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지역경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산직불제를 확대·개편해 어가 소득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후보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건 공약으로, 안 지사는 이를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교육 공약 보완

낡은 학교시설 전면 보수

내진 설계 보강... 안전 최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그동안 매년 예산지원 문제로 논란이 된 누리과정에 대해 전역 중앙정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시설 현대화로 학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예산 지원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에 대해 전역 중앙정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부담을 떠넘기는 바람에 갈등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해마다 필요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제 때에 확보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등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안 후보는 “누리과정을 비롯해 보

육·교육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시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학부모가 마음을 졸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낡은 학교시설을 전면 보수하고, 내진 설계를 보강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학교시설은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축돼 노후 건물이 많고 지진에 취약한 내진 비저용 건물이 대부분”이라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여건이 돼 교육활동에 지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과 같은 교육복지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시설사업비가 축소돼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명길 입당... 국민의당 의석 40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던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구)이 27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입당식에서 “대선을 12일 앞둔 오늘 미래에의 희망을 제시하는 정권교체에 헌신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며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안보·경제·사회갈등의 위기 상황을 통합정부를 구성해 대처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안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선택받는 게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MBC 기자 출신의 최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 때인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송파구에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가 지난달 29일 김 전 대표를 따라 탈당했다. 최 의원의 입당으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으로 늘어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7 대선 브리핑

광주 온 이재오 “선거 유력후보에 유리” 비판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선 후보가 27일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 할 때에 공평하게 하자”며 현행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모든 후보가 똑같이 3억

원씩 기탁금을 내는데 지금은 유력 후보들에게만 유리한 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선거의 의미가 없다. 박근혜에서 ‘아무나’로 이름만 바뀌는 정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5월 2일... 대선후보 TV토론 2회 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두 번째 주재인 경제 분야를 놓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TV토론회를 연다.

이번 경제 분야 토론은 세부 주제를 정하지 않고 각 후보자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TV토론회가 실시된다.

토론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모두 5명으로 공직선거법 82조에 의해 의석수 5석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로 선정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의원 45명 ‘우병우 특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45명은 2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게이트’ 목인·방조 혐의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법률안 제안 이유서에서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보주기 수사·기소

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우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안은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세 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자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정했다.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까지 둘 수 있고 특검보는 3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120일 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있다.

수사 범위에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검찰에 대한 부당 수사개입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과 가족회사 정감 과 관련된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이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